

세월호 국조 파행... 유족들 특별법 서명운동

박대통령 발언 진위 놓고 여야 신경전 한때 중단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업무 태만 아니냐” 추궁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사고 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을 조작해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발표했다”며 “김 의원의 (특위위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그전까지는 회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원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조사중단)처사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요구)김광진 의원이 발언이 잘못됐 것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했다”며 “여당은 제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보고 함께 (기관보고)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고 녹취록을 근거로 청와대 한 관계자가 해양경찰청에 선박 주변 영상을 요구하며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VIP(대통령)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한다. VIP는 계속 다른 화면만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서 김 의원은 “직접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발언은 없었는데 사과한다”면서도 맥락상 박 대통령도 사실상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특위에서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동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선박끼리 근접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경보가 울리는데 사고 당일 오전 8시35분

삼영호가 (세월호의) 위험 반경에 겹쳐 들어왔는데도 해경은 이를 묵과하고 교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담당자가 교신해서 주의를 줬으면 사고가 발생 안했는데 기본 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청와대는 사고 초기부터 구조에 전념해야 할 해경청에 몇 명이 구조됐느냐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참사 이후 청와대는 사고의 콘트를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순회 버스를 시작하는 취지를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각한 두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왼쪽)·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 브리핑

기동민, 수완동에 선거사무실 개소 성황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일 광주 수완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를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규선·인재근·유은혜·박홍근·김승남·진성준 의원 등과 지역민들이 참석했다.

인재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내 남편 김근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기동민”이라며 “정부와 청와대, 국회, 서울시를 거처며 든직한 일꾼으로

성장한 기동민에게 광주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맡겨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동민 예비후보는 “지금 광주는 낡은 과거로의 회귀냐? 새로운 미래로의 발전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새 인물, 새 변화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광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김명진 “남북 관계 투트랙 방식 접근 필요”

김명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일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단박에 내치는 것보다 최소한의 대화의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 프로세스의 첫 주진 과제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인 만큼 정부 측이 대결적 자세만 견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화 채널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 장사정포, 미사일 실험 발사 등 남북간 긴장 상태를 조성한 데 대해서는 계속 경고와 자제의 시그널을 보내고, 동시에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 교류·인도적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접근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광주지역 변호사·새실련 등 지지받아”

이상갑 변호사 등 광주지역 변호사 31명과 새정치실천연합 등이 2일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31명의 변호사들은 “광주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광주에는 천정배와 같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지도자가 절실하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새정치실천연합 등 새정치 5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정배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법무장관 재임시 보여준 높은 개혁성과 도덕성,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고려했을 때 잠재된 호남정치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데 뜻을 모아 지지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광산교육청 부활 교육도시 실현 최선”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일 “광산교육청 부활 등을 통해 교육도시 광산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는 294개교로 동부교육지원청의 185개교 보다 1.6배가 많고 광산구 등 3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산구는 향후 5년 이내에 인구 5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교육행정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수년 동안 추진돼 온 광산교육청 부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정치복원 제1 목표로 삼겠다” 새누리 이정현·진보당 이성수 후보 확정

광주시의회서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서청원(사진) 의원은 2일 “대한민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 복원을 제1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정치경험과 경륜을 살려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정치 복원을 제1 목표로 삼을 것이다”며 “지난해 민생법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장 먼저 한 것이 박지원, 정세균, 문희상, 이혜찬 등 야당의 지도자들과 1대1로 만난 것이었다. 야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치복원을 할 수 있는지 여야 간 대화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해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부른 노래를 그렇게 해 안타깝다”며 “당 대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힘 광주·전남 발대식’에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곡성 보궐선거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7·30 재보궐선거의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새누리당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공천했다.

공천관리위 김태홍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이 전 수석이 단수로 후보 신청한 지역으로서 오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2일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순천·곡성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



이정현 후보



이성수 후보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순천시위원회와 곡성군위원회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전 전남지사 후보를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이 후보는 “서민정치,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의 선택 기호 3번을 찍어달라”며 “위대한 승리로, 진정한 서민정치로,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리산 노블랜드

산지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회개장터, 썬게사, 화원사, 노고단 근처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봉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